‘수요일 수많은 콘서트’ 열린다

전주한벽문화관, 10월까지 뮤지컬 · 무용 · 클래식 · 대중음악 등 다양한 공연 ‘수수콘’ 개최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은 수수콘(수요일 수많은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수요일 저녁 7시 한벽공연장과 마당창극야외공연장에서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 퓨전음악, 대중음악, 다원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5일 첫 무대를 시작하는 극단 골무의 뮤지컬 ‘제비꽃’은 한국전쟁 중 남한과 북한 군인들의 무인도 탈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12일 함희원 씨어터의 현대무용 ‘라일락 에피소드’는 사랑을 라일락꽃에 빗대어 다양하게 표현한다.

19일에는 박현희 무브먼트의 한국무용 ‘춤으로 이어가는 세시풍속-단오 춤맞이’ 공연이 진행된다. 전주 선자장이 만든 부채로 전주 단오를 표현한다.

26일에는 퓨전국악팀 에헤라의 ‘Flor’를 통해 창작 초연 곡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 7월 3일에는 국악그룹 CEO’S가 ‘국악 다방 주문하시겠어요’를 통해 관객 참여형 무대를 꾸민다.

10일 이상한계절이 선보일 ‘이상한계절 환절기 콘서트 : 사계’에서는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계절 연작 시리즈를 발표한다.

이후 7월 17일 K-필하모닉 오케스트라, 8월 7일 전북음악예술종합교육원, 8월 21일 센세이브라스, 9월 11일 국은예에트(etre), 10월 2일 현대음악앙상블, 10월 30일 홍지형이 공연을 펼친다.

전주한벽문화관 관계자는 “실연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전주지역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도 제공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전주한벽문화관 누리집이나, 전주문화재단 브랜드공연팀(063-280-7006, 7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주한벽문화관은 ‘2024 공연활성 무대지원사업 〈수요일 수많은 콘서트〉’에 12개 단체를 선정했다. 지난해 10개 단체(5장르)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12개 단체(7장르)로 확대해 전주 문화예술인·단체의 실연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연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수수콘(수요일 수많은 콘서트) 포스터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졸업작품전 개최

‘MOMENT(순간)’ 주제… 우리 삶의 순간 무한한 감정 · 기억 요리로 표현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학과장 도현욱)는 오는 8일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제22회 졸업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작품전은 주제는 ‘MOMENT(순간)’로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 속에서 무한한 감정과 기억을 요리로 표현했다.

또한 흘러간 하나의 발자취, 간직하고 싶은 추억, 마주하게 될 현실과 시련, 그리고 향하고 싶은 졸업생들의 미래를 이야기로 담았다.

이번 전시에 총 48명의 4학년 학생들의 개인 작품과 함께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대체 식품, 한식 디저트 상품 등 26개의 상품개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졸업작품전을 준비하는 김효진 학생은 “기획서 작성부터 메뉴 선정, 촬영, 전시까지 어느 하나 쉬웠던 것이 없었지만,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순간이라는 한 권의 책에 마흔여덟 가지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페이지를 기록하게 될 우리들의 미래를 응원해 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현욱 학과장은 “K-Food 한식 세계화를 이끌어 갈 글로벌 한식 인재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창의적인 음식과 상품개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인상 깊은 졸업작품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방문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립미술관 서울관서 명안나 작가 개인전 개최

‘식사 하셨습니까’ 9일까지… “인간 삶의 진실 있는 보편성 의미 되새겨 보길”

전북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오는 9일까지 서울관에서 명안나 작가의 17번째 개인전 ‘식사 하셨습니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명안나 작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정적으로 풀어낸 회화와 병리적 사회에 대한 통찰을 담아낸 설치작업을 펼쳐왔다.

특히 작가는 화려한 색채의 구상 작업을 이어오던 중 2015년부터 ‘개미 작업’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개미 Les Fourmis』에서 개미와 인간 세계의 유사성을 집요하게 탐구하였듯이 작가 역시 수작업으로 개미 오브제를 만들면서 그것에 일상을 일구고 살아 숨 쉬는 인격체와도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전시의 제목을 통해 관객에게 지극히 일상적인 물음을 던진다. 또

한 그간 삶의 도처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것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작업해 온 작가는 이와 같은 당연한 질문으로 예술의 의미를 환기한다. 범속한 주제 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에 출품된 작품의 소재와 재료 또한 그러하다.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묶음 철사를 하나하나 구부려 에나멜페인트를 칠해 완성했고, 작가의 주변 사람들이 소지한 가방을 캔버스 화면에 그려내며 밝은 색상으로 표현했다.

겸재정선미술관 송희경 관장은 명안나의 이번 전시를 두고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한 마음을 표현한 동심”이라고 평했다.

명안나 작가는 “인간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연대를 이루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사회적 동물임을 개미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며 “인간 삶의 진실 있는 보편성의 의미를 되새겨 보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작가는 국립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미술협회에서 주관한 김제벽골미술대전 우수상과 진주개천미술대전 우수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등 예술 세계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 2023년 국립군산대학교 미술관 특별기획전 등 최근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소프라노 박서정 독창회 열려

소프라노 박서정 독창회가 지난 1일 오후 4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펼쳐졌다.

이에 따르면 이날 공연은 한국 가곡과 창작 동요로 구성된 프로그램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봄과 여름을 2부에서는 가을과 겨울을 느낄 수 있는 곡들로 준비했다.

공연을 진행한 한 관계자는 “공연이 끝나고는 각자의 제일 마음을 울렸던 곡 한 곡씩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박서정은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를 졸업했다. 전북대학교 제29회 정기연주회 오케스트라 협연을 했으며, 현재 강서구립합창단 수석 단원이자 앙상블 이내 단원 앙상블 블룸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장은성 기자

고창 신재효판소리공원, 판소리 산공부 참가자 모집

고창군이 동리 신재효선생의 유업계승과 판소리 진흥을 위해 방학기간 동안 판소리 전공자를 대상으로 판소리 산공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는 판소리 명창 · 지도자 판소리 합숙 교육 또는 판소리 전공학과(대학교) 합숙 교육으로 단체별 신청 인원은 6~15명 정도이다.

참가자에게는 신재효판소리공원 산공부 장소와 숙소를 제공하며 기간은 10일 정도다.

모집은 고창군 홈페이지에 6월 1일부터 20일까지 공고하여 접수는 17일부터 20일까지이다. 자세한 문의는 신재효판소리공원(560-8043, 560-8035)이다.

/고창=김영식 기자